

지난 5월 24일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박맹호, 이하 출협)에서는 출협을 포함한 9개 출판관련 단체(불교출판문화협회, 학습자료협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한국출판경영자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기독교출판협회, 한국학술도서출판협의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본문검색 서비스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이들 단체들이 모인 이유는 네이버, 엠파스, 다음 등 포털의 도서본문검색서비스가 출판계의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현재 ‘책 읽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가장 적극적으로 출판계에 구애를 보내고 있는 네이버는, 각 출판사가 네이버와 본문검색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출협 차원에서 나설 경우 출협에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할 것을 출협에 요청한 상태다.

저작권협, 권태남 | 한겨레 | 2011년 5월 24일

전통적으로 주요한 홍보 매체였던 신문의 영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포털사이트의 책 정보 제공에 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 네이버 역시 이러한 점을 적극 강조하면서 출판계로부터 도서본문을 제공할 권한을 제공받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눈앞의 이익만을 쫓을 수 없다는 게 출협의 중론이다. 출협의 고민은 두 가지

출판계, 네이버와 MOU 약인가 독인가

본문검색 서비스 저작권 분쟁이와

출판계 경쟁력 일부 도움보다 책의 질 저하 우려가 목소리

로 요약된다. 먼저 저작권법상의 문제다. 대부분의 출판사에는 출판권만 있을 뿐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때문에 ‘출판권 설정 계약’ 상에서 출판권만 있는 출판사가 저작자의 동의 없이 네이버에게 본문검색 허용할 경우 추후에 원저작자와 갈등을 빚을 수 있다.

저작권 전문가들 역시 출판계의 이러한 우려에 동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자로부터 본문검색 서비스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고, 또 저작권법이 정하는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시 말해 저작자에게는 저작권법 제16조, 제18조의 2에 의해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어 보호 저작물이 본문검색 서비스의 대상이라면 복제나 전송과 관련하여 저작권자로부터 해당 권한을 양도받았거나 이용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 만든 도서관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제28조 제3항은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인환 인하대 교수는 본문의 일부를 보는 행위가 도서관이나 서점에 찾아가서 직

접 저작물을 찾아 이용하는 경우와 다를 게 없다는 이유로 본문검색 서비스가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본문검색 서비스에서 검색되는 자료는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전송되는 것이므로 저작물이 무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묵시적으로 저작물의 이용이 허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제공되는 본문파일이 악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가 동반될 것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가 지난 3월 23일 국회도서관과 업무 제휴를 맺어 120만 권에 가까운 서지 정보와 디지털화된 6,000여 권의 본문 서비스를 한 것 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작권집중관리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관이나 시설 경우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인 한국한국복사전송권센터가 유력하다. 복사전송권센터는 오프라인도서관에 대해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정보이용 내력을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미 가지고 있어 빠른 시간 안에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출판계가 주도 출간권 내역 시퀀스 개방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출판계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도서본문검색 서비스가 5만 종 정도일 때는 홍보효과 차원에서 넘어갈 수 있지만 50만 종 내지 500만 종이 됐을 때는 출판계의 또다른 권력으로 등장할지 모른다는 우려다.

특히 출판계는 아직 제대로 된 시장분석이 되지 않은 본문검색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책판매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고 있다. 무턱대고 네이버와 계약했는데 오히려 책판매가 감소하는 결과가 생겼을 때 출협이 그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이다. 때문에 출협은 네이버의 출판계 지원이 진정한 출판문화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사의 생존을 위한 콘텐츠 확보에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출협 홍보를 맡고 있는 마음산책 정은숙 대표는 출협에서 발간하는 <출판문화>에 실은 ‘저마다 색채가 분명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네이버나 다음 같은 힘 있고, 영향력 큰 포털 사이트가 책의 본문검색에 뛰어들

것은 출판계로 보면 큰 기회이자 출판의 새로운 국면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며 “하지만 그 전에 저작권의 문제나 정보 흐름의 문제, 책의 유통의 문제 등이 심각하게 고민되어야 마땅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출판계 경쟁력 강화와 출판문화의 발전을 외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우선 검색을 통해 생겨난 독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강조했다. 책 제작시 비주얼이나 효과적인 내용 전달법을 찾아내는 등 특히 제작에서 독자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검색에 만족하지 않고 수용자가 책을 들게 하는 데에는 책이 지닌 장점과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독자 혹은 유저들에게 유저든 글 읽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정보의 폭과 깊이를 위해서는 결국 본문을 제대로 다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며 “출판계가 주도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인 대책 세워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결국 출판계로서는 책을 읽는 사람이 단편적인 지식의 보유자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해 보이는 것이 과제라는 것이다.

인내문 발송 및 전문 연구팀 구성키로

현재 네이버와 개별적으로 본문검색서비스를 계약한 출판사는 60여 곳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간담회에서는 출판사들이 저작권 등에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개별적인 계약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저작권법상의 문제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법률전문가 등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로 연구팀을 구성해 본문검색서비스가 앞으로 출판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보다 신중히 연구하기로 했다.

한편 온라인의 또다른 강자인 다음은 교보문과와 제휴를 맺고 도서검색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다음은 교보문고를 통해 315만 종의 도서관 관련 DB를 확보해 올해 6월 중 도서본문검색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도서본문검색이 특징은 검색어 포함된 도서본문의 앞뒤 4p 가량 직접 검색하고, 네이버와 달리 책에 포함된 이미지 및 도표 등을 그대로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음은 전자책, 도서동영상, 오디오북 등 디지털 콘텐츠 분야를 강화해 차세대 플랫폼으로 준비하고 있는 TV, 무선단말기 등과 같은 유기적인 연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취재_신동섭 기자